

지역 소식통

정읍천 청소년 물놀이장 개장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말 아이들과 함께 정읍천 청소년 물놀이장을 찾은 시민들이 즐거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정읍 시내를 가로지르는 정읍천에 조성된 청소년 물놀이장은 여름철 대표적인 도심 속 휴식공간으로 꼽힌다.

시가동 정동고 하류 3880㎡ 규모로 조성돼 있고 어린이 풀장 2곳과 물살매장, 인공폭포, 인마용 폭포수 등을 갖추고 있다. 개장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이용객 편의를 위한 물갈래트와 평상, 탁아실 등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다.

관계 공무원은 물론 청원경찰과 수상안 전요원, 응급진료요원 등이 근무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쏟고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서, 여름 휴가철 특별방범활동

부안경찰서는 군민들의 편안한 여름 휴가를 위해 특별방범활동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부안서는 지난 7일 격포해수욕장 등 피서지 인근 범죄를 예방하려고 김희철 생활안전과장을 비롯한 경찰관 10명과 시민경찰 등 협력단체원 20여 명이 합동순찰을 벌였다.

이날 합동순찰은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을 대상으로 성범죄와 안전사고 예방 등 여름 휴가철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범죄예방에 대한 예방홍보를 병행 펼쳤다.

이동민 서장은 "여름 휴가철 이란된 분위기를 틈타 각종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경찰과 협력단체의 적극적인 방범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치안 공백 없는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려고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고창군자원봉사종합센터 청소년 자원봉사 체험학교 개최

고창군자원봉사종합센터가 8일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제1회 청소년 자원봉사 체험학교'를 개최했다.

전라북도 자원봉사종합센터 공모사업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홍익 청소년문화의 집', '성내 청소년문화의 집', '고창군 소망서', '엔젤스킨공방'이 함께 참여해 자원봉사기본교육과 다양한 체험활동을 진행했다.

김종균 고창군자원봉사종합센터 소장은 "지속적으로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해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에 기여하고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보람과 자긍심을 심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우유, 건강한 먹거리에요”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정읍시, 우유 소비촉진 포럼 개최... 정보 제공 주력

8일 수성동 주민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여성 소비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우유 소비촉진 포럼이 진행됐다.

포럼은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정읍지부와 정읍시에서 공동으로 주관했다.

주관 측은 "가정 식품소비의 주도권을 쥐 주부들에게 우유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우유가 건강한 먹거리를 알려 긍정적인 인식을 높임으로써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포럼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포럼은 주부의 우유소비 저해요인 분석과 소비촉진 방안 도출을 대 주제로 진행됐다.

나눔기, 영양사, 우유업체 관계자, 행정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주제 발표자와 패널로 참여해 우유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데 주력했다.

주제발표는 '우유의 성분과 조성', '여성건강과 우유의 긍정적 효과', '영양가 있는 우유 건강하게 음용하



는 방법' 등이다. 주제발표 후에는 질의응답과 자유토론도 진행됐고, 특히 우유 등 유제품 관련 요리 전시회와 시식회도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김생기 시장은 "최근 우유 소비 감소와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분유 소비

량이 줄어 축산 낙농가의 어려움이 깊어지고 있다"며 "이번 포럼이 우유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긍정적인 효과를 알리는 계기가 되어 우유 소비 촉진이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이웃과 함께하는 또 하나의 가족’ 사업 전개

고창지역자활기업센터-웃사랑 빨래터, 업무협약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무료 세탁서비스 제공

‘이웃과 함께하는 또 하나의 가족’을 목표로 고창지역자활기업센터가 지역 사회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고창지역자활기업센터는 지역사회 지원과 연계해 바우처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그 일환으로 자활기업 웃사랑 빨래터(대표 민경숙)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협약을 통해 세탁업체인 웃사랑 빨래터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과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세탁관련 재능을 기부해 무료로 세탁서비스를 제공하고 자활센터는 사회공헌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면서 바우처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

역 전체에 재능을 조금씩 나누는 재능기부 문화가 활성화되고 지역 전체에 폭넓은 자활의지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공헌 사업을 적극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지역자활기업센터는 가사간병방문지원과 노인돌봄 서비스 사업 등 사회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웃사랑 빨래터는 지난 2012년 12월 자활기업으로 창업한 이래 꾸준한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기적의도서관, ‘고교 독서동아리 캠프’ 운영

정읍 기적의도서관이 2017 한권의 책 독서운동의 연계 프로그램으로 고등학교 독서동아리 연합캠프를 운영했다.

이 캠프에는 정읍지역 고등학교 독서 동아리에서 활동 중인 60여명이 참여했다. 캠프는 정읍교육청과 지역 사회와 연계한 책오일(일명 책생프로젝트: 정읍교육지원청 사업), 4개 고등학교 정읍시(기적의도서관)가 연합해 추진했다.

‘책생프로젝트’의 활성화를 통해 정

읍지역 내 고등학교 독서동아리 참여 학생들의 우정 증진과 독서모임의 공유를 도모했다는 측면 뿐 아니라 지역 내 교육기관들이 힘을 모아 진행했다는 점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캠프로 평가된다.

캠프에서는 ‘편견’을 주제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편견에 대한 시각을 올바르게 고쳐 바라볼 수 있는 방생 토론과 게임, 그림자극 감상이 진행됐다.

기적의 도서관 관계자는 “연합캠프

를 통해 지역 내 교육기관이 합심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우수한 학습모형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지도하면 장애 정읍을 대표할 훌륭한 주역들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연합캠프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운영됐다. 지난해에 참여한 입소문에 힘입어 올해 참가 희망자들의 경쟁이 치열해져 참여 인원을 40명에서 60명으로 확대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친환경아리울협동조합

무항생제 삼겹살 나눔 행사

친환경아리울협동조합은 아리울 홍보관에서 전국장애인정읍지구 학부모회와 정읍시 드림스타트가 구 등 300여명을 초청해 무항생제 삼겹살 등 푸짐한 점심식사를 대접했다.

이 자리는 올해로 세 번째 마련됐다. 장형기 아리울협동조합 대표와 조환원 등은 이날 무항생제 삼겹살 7kg과 음료수 등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대접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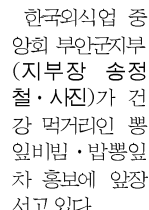
장 대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쁘고, 이렇게 작은 나눔들이 모여 큰 나눔으로 이어지고, 모든 구성원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더불어 자리를 함께 한 김생기 시장은 “이 자리를 통해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이웃들의 온정과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연계 지원 발골에 힘써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협회사법인 아리울 주식회사는 정읍지역 무항생제 돼지 사육농가들이 유통을 위해 설립했다. 지난 2011년 정읍시 농축산물 대표 브랜드인 ‘단풍이인’ 사용 허가를 받으면서 최고급 브랜드로서의 위상을 높여면서 소비자들의 인기 또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한국외식업 중앙회 부안군지부 송정철 지부장 건강 먹거리 빵일비빔·밤빵일차 홍보 앞장



한국외식업 중앙회 부안군지부 (지부장 송정철·사진)가 건강 먹거리인 빵일비빔·밤빵일차 홍보에 앞장 서고 있다.

8일 한국외식업 중앙회 부안군지부 운영위원 간담회에서 부안을 찾는 관광객에게 우리 지역의 대표 지역음식으로 개발된 빵일비빔, 빵일 차 등 제공에 전 외식업소가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부안군은 외식업 지부와 동행행정으로 함께 추진하고 있는 외식업소 3無(불건절·바가지요금·원산지 미



표시)有(맛, 정, 복) 운동과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한 빵일비빔밥을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하고 앞으로 빵일 차나 상 차차 등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음료로 제공해 지역 농 특산품을 알리고 친절서비스 향상 등을 통한 부안관광 이미지 제고에 집중하기로 했다.

송정철지부장은 “우리 외식 업소들은 산·물·바다와 노을이 어우러진 천혜의 사계절 관광자원 번산반도에 전국의 관광객과 탐방객들이 찾고 있는 전국에서 깨끗하고 인심 좋은 부안군을 만들고 많은 관광객을 모실 준비와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며 “우리 모두 3無·3有 운동을 함께 실천해 북극부안 부래 민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Advertisement for Gangsan Wine featuring Mulberry Wine and various gift sets. The ad includes images of wine bottles, gift boxes, and a cartoon bear mascot. Text describes the quality of the wine and offers various gift set options with prices.